

KISA & KISA 

수영동호회 '힘찬물살'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수영은 전신운동과 몸매관리라는 뛰어난 장점 덕분에 지난 몇 년 전부터 인기 있는 스포츠로 각광받았다. 여기에 최근 우리나라에도 국제적인 수영스타가 배출되면서 수영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높은 인기를 보이는 수영이지만, 단체경기가 아닌 개인 스포츠라는 점과 또 '맨 살'을 그대로 드러내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동호회 테마로 수영은 낯설기만 하다. 그런데 KISA에는 수영 동호회가 존재한다.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현재 수영을 배우고 있거나, 예전에 배웠던 그리고 새롭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수영동호회, '힘찬물살'은 매월 KISA 근처 수영장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들의 수영실력과 우애를 다진다. 수영연습 후 식사와 간단한(?) 주류로 친목을 도모하는 이들이 수영을 사랑하는 중요한 이유는 '건강'이다.



전신운동, 수영

몸을 부드럽게 해 주는 전신운동인 수영은 특히, 몸의 균형을 잡아 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KISA의 연구원들처럼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직장인에게 수영은 허리나 목 디스크 등을 예방하는데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물론 운동 효과와 함께 그에 걸맞는 '폼'도 이들에게 중요하다. 때문에 '힘찬물살'에서는 초보부터, 마스터까지 다양한 실력을 가진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 수영실력을 쌓고 싶은 직원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라한다.

몸매 걱정? 'No'

사실 수영은 맨 살을 고스란히 드러내야 하는 만큼 회원들은 부담이 느껴질 법도 하다. "수영복을 입은 모습이 부끄럽다며 가입을 꺼리는 직원들이 많아요. 하지만 선수가 아닌 이상 몸매가 좋은 사람들이 많거나 되겠어요. 또 정작 수영장에서는 운동하기에 바빠 다른 사람의 몸매에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어요." '힘찬물살' 동호회의 한 회원은 몸매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필요 없다고 강조한다. 물에 뜨기만 한다면, 아니 몸이 물에 뜨지 않아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동호회, '힘찬물살'.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 이들은 더욱 힘차게 물살을 가른다. **S**